

버섯 육성품종 『흑백느타리』

봉지재배 농가에 매우 긍정적 ...

경기도농업기술원 광주버섯시험장(장장:주영철)은 2002년 병재배용으로 육성한 흑백느타리(KME35099)버섯을 봉지재배법으로 검토하기 위해 여주군 소재 샷갓봉균이농산(대표:이남주)에서 농가실증시험을 수행한 결과, 형태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수량이 높아 재배농가의 반응이 매우 좋았기에 시험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용된 배지는 톱밥+비트펄프+면실박(50:30:20) 혼합배지와 톱밥+면실피+쌀겨+면실박+비트펄프(50:20:10:10:10) 혼합 배지를 직경 20cm 봉지에 1.3kg 정도씩 담고 100℃ 상압살균 후 접종하여 23℃에서 23일간 배양하였고, 2~3℃에서 4일간 저온처리 후 발이유기 시켰다.

발이유기시부터 수확완료시까지 13일이 소요되었는데 수확시 버섯의 형태는 대가 굵고 희며 갓이 우산형으로 형태적으로 매우 양호하였으며, 1주기 봉지당 수량은 평균 476g으로 기존의 다른품종(250~450g)보다 높은편으로 재배농가의 반응은 좋은편 이었다.

재배농가 이남주씨는 버섯재배경력 18년 이상의 독농가로서 버섯 형태가 측생형, 우산형으로 모양이 안정되고 예쁘며 갈변병에도 강하고 수량성이 높은 계통이나 재배시 환기량이 많이 요구되고 갓이 다소 부스러지는 것이 아쉽다고 평하면서 더욱 확대 재배하고 싶은 생각을 피력했다.



흑백느타리 입상7일



흑백느타리 입상8일



흑백느타리 입상9일(수확)



흑백느타리 입상10일(수확)